



이 영 관
도레이첨단소재 · 도레이케미칼
대표이사 회장

한국고분자학회 40년의 역사는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

한국의 고분자 과학과 기술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고분자학회 40년의 역사는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와 맥을 함께 해왔습니다. 기초과학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 배출의 산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역대 회장들과 임원진의 봉사 그리고 회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화학소재 기업의 경영자로서 또 공학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학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소재의 혁신없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분자과학과 기술은 새롭고 다양한 소재개발로 산업발전을 이끌면서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안전하게 바꾸어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을 실재로 구현할 수 있는 혁신성을 끊임없이 추구해 온 핵심과학인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은 지금, 고분자과학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산업과 기술에 대한 보호장벽이 높아져가는 만큼 학문간 융합과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업없이 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우며, 국제경쟁력을 제고해나갈 수 없습니다. 고분자과학이 지금까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생명공학, 신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전반에 걸쳐 기초소재부터 첨단소재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분야에서 산업과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기반산업과 신사업간의 융복합 분야에서도 절대적으로 고분자 신소재와 응용기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기술적 변화 속에서 학회는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산·학·연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내외를 아우르는 국제적인 학술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학회와의 지속적인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그리고 긴밀한 협력으로 동반성장이라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고분자학회가 더욱 내실을 기하고 외연을 확장하여 과학과 국가 기술력 향상에 커다란 버팀목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거듭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며,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고분자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도레이첨단소재 · 도레이케미칼 대표이사 회장 이 영 관